

남아공 김영애 선교사 7월 8월 선교 소식 드립니다.

계절이 반대인 아프리카 한 모퉁이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홍수와 무더위 소식을 들으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안부 여쭙습니다. 무탈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소망하며 선교지 근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1. 무료 급식 재계

한동안 무료 급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구제 현금을 보내 주신 교수님께서 또 현금을 보내 주셔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 화요 빵 나눔

화요일로 선택한 것은 쓰레기차가 오는 날이라 집이 없는 분들과 쓰레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새벽부터 다니는 날이라 아침에 갓 구운 빵을 찾아와 나누고 있습니다. 따뜻한 빵을 받아 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3. 담요 나눔

담요 나눔은 겨울 동안 homeless 분들과 양로원 그리고 사역자들 위주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라벤다 힐 지역 성도님께서 담요를 받고 겨울을 지내시다가 얼마 전 소천 하셨습니다. 병들고 외로웠던 성도님 삶의 마지막 끝자락

에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진 왼쪽 첫 번째 분이십니다. 남은 담요를 나누고 나니 아프리카는 봄이 와 있습니다.



4. 성경 나눔

코사 성경을 추가 구입하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이 많아 앞으로도 힘닿는 대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Hope of Africa 신학생들에게 Global Study Bible과 1년 매일 말씀 묵상 집을 보급했습니다. 주석 성경과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신학생들이 잘 준비된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5. 버닝 부시 유치원 천정 공사

우기 전에 새 지붕을 시공하여 겨우내 누수 없이 지낼 수 있어 참 감사하였습니다. 이전 누수로 인하여 내부 천정도 곰팡이와 손상이 많아 다시 시공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교회 교육관이자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 현지 교회도 헌금을 하고 저희 가정과 지난번 지붕 공사 후 남은 동부 교회 헌금까지 합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 그리고 현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6. 코보도 목사님 사택 건축

몇년전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떠난 코보도 목사님은 거처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현지 교회 성도님 중 한적한 산골짜기 땅에 목사님 사택을 건축하라고 내어 주셔서 몇 달에 걸쳐 공사하여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 거리가 너무 멀어 이삿짐을 옮기려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간단한 짐만 가지고 떠났고 그동안 요하네스버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의 집을 돌봐 주면서 약간의 월세를 내고 살다가 집 주인이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 형편이 되어 사택을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건축할 때 조금밖에 도움이 못되어 안타까웠는데 시골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건축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안에 필요한 가구와 살림살이들이 필요합니다.



7. 몬타구 지역 미혼모를 위한 그레니 하우스 짓기

거리에서 살아가는 분들께 담요 나눔 중 몬타구 지역에 어린 임산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임산부가 거리에서 해산하지 않도록 고심하는 중에 시골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 방문하였습니다. 임산부 어머니는 전형적인 시골의 가난하고 순박한 분이었습니다. 딸과 태중 아기 아빠가 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고 여쭙었고 어머니의 단칸방에 함께 살 수 없을것이니 마당에 그레니 하우스를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책임질 사람을 찾았고 브리턴이라는 분을 소개 받아 whatsapp 비디오 미팅을 하며 자재비와 인건비 공사 일정 등을 의논하며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방 하나와 부엌과 화장실 샤워 시설을 갖춘 그레니 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전기와 수도 그리고 정화조 연결 공사까지 해야 하는 간단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무모한 시작 같지만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 손잡고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가슴이 설레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진에 참여 할 분들을 보내 주실 줄 믿으며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 제목에 은행 계좌를 남기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임산부의 어머니, 공사 담당할 브리턴씨, 브렌다 선생님과 진원이까지 함께 한 미팅 사진들입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1. 몬타구 지역 미혼모를 위한 그레니 하우스를 짓는 일을 위하여 함께 하실 분은 **하나은행 김영애 250 890000 10708**입니다.
2. 김영애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알려지 기침이 심합니다)
3. 현지 교회들과 유치원들이 은혜롭게 잘 유지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4. 진원이와 진현이가 평생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동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 서신 때 까지 평안하시기를 원하옵고 남아공 스텔렘보쉬에서 김영애 선교사 올립니다.

